제3강 불교 성립의 시대적 배경

(1교시)J_stJo01_030908_01

◎ 윤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도올, "불교가 윤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회의 설정 없이는 인간 삶의 도덕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업에 대한 요구가 근원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용옥, <금강경강해> 중)

불교가 윤회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

이 질문에는 불교에 있어 종교성을 배제하고 하나의 철학 원리로만 이해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윤회를 인정하면 철학과 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

우리가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

윤회라는 장소 안에서 **'선인락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 즉 업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잘못을 행하면 내세에 벌을 받는다.**

윤회를 제외하고도 불교철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어불성설이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나의 행동은 반드시 도덕적 인과율을 거쳐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윤회를 부정하면 이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윤회의 주체 문제

무아론에 따르면 '나'가 없는데, 어떻게 현세의 '나'의 선업이 미래의 '나'의 선과로 이어지는가?

내가 저지른 일은 미래의 나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다만 우리는 이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아론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김문화와 현재 대학생인 김문화는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엄밀한 철학적 의미에서는 이 둘은 다르다. 이 둘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즉 동일성을 보지 않는 것이 무아이다. 동일성이 관념일 뿐이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무아이다.

◎ 불교에도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양에서 숭배하는 절대신이 믿음을 대상화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신을 내면화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종교의 궁극적인 본질 -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2교시)J_stJo01_030908_02

◎ **불교의 발원**

1.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여러 종족이 남하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문명

-> 좌선을 하고 있는 형태의 조형물과, 당시 종교적 제의와 연관 깊은 목욕문화가 발달했던 사실이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발견됨.

기원전 3000년경 하라파, 모헨조다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문명이 발달했다.

卐

불교의 상징인 이 문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스바스티카로 불리며 이 시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2. 아리아인들이 남하하여 인도를 지배

남하하여 인더스 강 상류에 정착한 아리아인들이 자연을 신격화하고 찬미하는 **베다 성전**을 낳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브라만교**를 이루었다. 이후에 나타나는 힌두이즘의 고전적인 형태라는 뜻에서, Classical Hinduism이라고 불리는 **브라마니즘**이 나타나게 된다.

3. 사회적 배경 형성에 있어 브라마니즘의 영향

Veda 시기에 사회분화가 발생, **바르나(Varna:色)라고 하는 계급 구분 제도**가 생겨나고 **Darma(다르마)**라는 계급적 의무가 곧 당대 사회의 도덕의식으로 사용됨.

브라만 계급은 모든 종교의식을 관장하여 종교적 삶은 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였고 특히 제사의 형식적 절차, 행위가 중요시 되었다.

4. 우파니샤드의 등장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체험이 종교적 이상으로 제시됨.**

브라마니즘은 제식을 주관하거나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말하자면 사상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우파니샤드는 사상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써,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실재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3교시)J_stJo01_030908_03

◎ 자유사상가들의 범람

. 우파니샤드 이후 개인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

. 브라만교의 전통을 비판하고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주장하는 움직임.

◎ 종교적 수행자들 - sramana

sramana: 한 특정 사상 유파가 아니라 anti-브라만을 외치는 여러 자유사상가들을 통칭하는 말.

'노력하는 자', '추구하는 자'

이들은 출가하여 고행을 실천하며, 스스로를 사문(沙門)이라 불렀다. 이 시기의 출가 고행은 희귀한 일이 아니라, 당대에는 하나의 사회 현상일 만큼 적잖은 일이었다.

◎ 걸식행위- 사원제의 기원이 된 수행 방식

이와 같은 사문들은 브라마니즘에 반대하며, 걸식행위를 바탕으로 한 수행을 공통적으로 행하였다.

이들은 세속을 떠나 숲에서 생활했고 이것이 곧 불교 사원, 나아가 수도원의 모태가 된다.

붓다 뿐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권력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떠났고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 유행이었다.

◎ 이들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여건

이 시기에는 철기 문화와 농경문화가 발전했고 특히 시장과 상업의 활성화, 부의 축적이 가능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권력을 이동시켜 국가 양상을 변화시켰다.

경제 발달로 인해 왕족과 경제력을 가진 장자(長者:상인)들이 실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은 브라만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사상들이 범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한편 불교는 당시의 진보성 때문에 장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 윤회설의 흐름

윤회설은 이미 BC 2000년 이전부터 있었고, 우파니샤드 중에서도 윤회의 메카니즘에 대해 쓴 구절이 있다. 이 때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5~6세기 무렵까지도 깨달음, 진리는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붓다는 대중 앞에서의 설법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 가르침을 구현**했다고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제3강 불교 성립의 시대적 배경

02학번 철학과 H 학생

1. 불교의 발원을 거슬러 올라감

(1)기원전 2000년경 고대 종족이 남하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던 문명이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의 인더스강 유역에 형성된 인더스 문명은, 계획적으로 정비된 도시와, 평지의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 세운 문명으로, 그들은 청동기를 이용해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고, 외국과의 무역도 이루어졌다. 민간신앙의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암소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지역으로써, 그 곳의 유적으로 당대의 문명을 가늠할 수 있다.

(2)아리아인들이 남하하여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아리아인들은 남하 초기에, 인더스 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앞서 그 땅에서 문명을 형성하고 있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사회제도를 확립

해 갔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찬미하는 베다(Veda) 성전을 낳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브라만교를 이루었다. 이후에 나타나는 힌두이즘의 고전적인 형태라는 뜻에서, Classical Hinduism이라고 불리는 브라흐마니즘 - 남하 문명의 사회, 문화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Veda란 '종교적이고 신성한 지식'을 의미하며,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의 네 종류의 베다로 이루어져, 신들에 대한 노래가 집대성된 상히타(Samhita)와, 본집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과 해석을 가한 브라흐마나(Brahmana), 제사의 설명을 더한 아라니야카(Aranyaka), 그리고 베다의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는 우파니샤드(Upanisad)로 구성되어있다.

(3)브라흐마니즘의 영향

⇒브라만교와 그에 의한 인도 문화는 불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므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예컨대, 우리는 흔히 사찰 등에서 '卍'이라는 글자(도형에 가까운 것일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 태양의 방광(放光)을 본 뜬 표시로서, 태양을 숭배하던 아리아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바스티카(Svastika) - 자제, 평안, 길상, 행운 등을 뜻한다.

혹은 불교의 근원 외에도, 그 성립을 위한 사회적 배경의 형성도 브라만교와 무관하지 않다. Veda 시기에 사회분화가 발생하는데, 지배계급이었던 아리아인에 의해 정복된 토착 원주민이 노예로 전락하였다. 이것을 바르나(Varna:色)라고 하는데, 익히 카스트 제도라고 알려져 있는 계급 구분 제도이다. 카스트라는 것은 포르투갈어로 정절, 순수를 뜻하며, 본래의 카스트 제도는 Varna라는 계급 구분에, 직업적 계급의식이 가미된 불분명하고 복잡한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에 따라, Darma라는 계급적 의무가 곧 당대 사회의 도덕의식으로 사용되었다. 본격적인 카스트 제도의 발생은 리그베다 시대가 끝나갈 무렵 수드라 계급이 성립되며 이루어진다. 이것에 의해 사제, 왕 혹은 무사, 평민, 천민의 네 가지로 사성계급을 제도화하였다. 원주민은 최하층의 천민계급에 속하고, 상위 세 계급은 아리아인들로만 구성되었다. 브라만교는 사성계급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수드라 계급의 사람은 브라만교에 입교할 수 없고, 브라만 계급은 모든 종교의식을 관장하여 종교적 삶은 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브라만교는 다신교의 성격이 없지 않지만, 그것들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믿어지는 브라만이라는 절대의 신으로 통일된다. 그것과 더불어 베다의 권위를 신의 계시라 하여 절대시하였으며, 따라서 브라만 계급의 권력도 절대적이었다.

2. 붓다가 나타날 무렵의 인도 문화

(1)우파니샤드로부터의 파장

⇒베다의 끝이라고 불려지는 우파니샤드는 베단타라고도 하며, 범아일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깊은 철학적 사색을 담고 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모든 존재의 근원인 브라만(梵으로써

의 우주)과 인간에 내재하는 아트만(眞我)이 동일함을 깨닫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체험이 종교적 이상으로 제시되었지만, 브라만 계급을 통해서만 종교적 삶이 가능함은 여전했다. 그러므로 브라만 계급의 사제들은 신격화되어 군림했다. 기본적으로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총칭할 수 있는 브라흐마니즘과, 우파니샤드는 비록 브라만교라는 같은 기원을 두고 있어도 그 의미가 상반된 점이 있었다. 브라흐마니즘은 제식을 주관하거나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말하자면 사상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우파니샤드는 사상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써,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실재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극적으로 바꿔 말하면, 형상화된 것들에 대한 부정의 여지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파니샤드의 전통이 Veda의 권위와 중교 계급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사상가들을 낳게 된다. 이것이 기원전 6세기경, 불교가 탄생할 무렵의 일로써, 당대의 사회적 현실과 맞물려 이 같은 일이 가능하였고, 불교 역시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기원전 5~6세기 무렵 인도 사회

⇒이 시기는 브라흐마니즘의 전통이 흔들리는 전환기였다. 그 원인이 된 당대의 변화 양상을 들자면 철기 문화의 발달에 의한 무기와 농경문화의 발전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특히 농경의 발달은 잉여 농산물을 발생시켜, 시장과 상업, 부의 축적이 가능케 하였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권력을 이동시켜 국가 양상을 변화시켰다.

풍부한 농산물의 생산은 잉여물자를 산출함으로써 교역을 촉진하고, 농기구를 비롯한 생활용품의 생산의 촉진이 수공업을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도시를 이룩하게 되고, 이들 소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군소 국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왕족과, 경제력을 가진 장자(長者)들이 실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은 브라만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사상들이 범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비록 국가간의 통합과정이 활발했다고는 하지만, 출혈을 통한 통합은, 이 시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3)사문들의 탄생과 발전

⇒우파니샤드의 사상적 경향과, 당대 사회의 변화 양상이 밑바탕이 되어, 브라만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에 존재하던 사상의 다양함은, 불교의 자료에 의하면 62가지(62見), 자이나교에 따르면 363가지 다른 견해들이라고 전해진다. 육사외도(六師外道) 등으로 대표되는 당대 신흥 사상들의 공통점은, 베다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세계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출가하여 고행을 실천하며, 스스로를 사문(沙門)이라 불렀다. 이것은 희귀한 일이 아니라, 당대에는 하나의 사회 현상일 만큼 적잖은 일이었다. 이와 같은 사문들은 브라흐마니즘에 반대하

며, 걸식 행위를 바탕으로 한 수행을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다. 걸식 행위는 노동을 배재하는 대신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일종의 전문 종교인(?)의 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윤회설 - 윤회의 이유와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불교 특유의 것이 아니라, 당대 사문들의 일반적인 물음이었다. 더불어 이 같은 양상들 중에 불교에 주목할 것은, 기원전 5~6세기 무렵까지도 깨달음은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붓다는 최초로 공개적 가르침을 구현했다고 하며(대중 앞에서의 설법), 또한 불교는 당시의 진보성 때문에 상인 계급(장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지난 프로토콜의 질문들에 관해서

(1)불교에 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기복의 유래.

⇒복을 비는 절대자로서의 신이라면, 당연히 불교에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갖 모습들로 현신하는 대승 불교의 보살들이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상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불교라는 것(것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가 없는데)은 도저히 한 가지로 정의내릴 수가 없다. 그것은 첫째로, 법으로써의 불교와, 깨달음으로써의 불교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중국 선불교에서 간화선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수많은 화두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그것들을 다 외워 문답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불교철학 강의 - 불법을 철학적 인식의 틀로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그 하나로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엮어 내더라도 결국 불교적 깨달음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밑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해 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로는 불교 역시 인간사 속에 던져진 것인 만큼, 순수하게 불교 그 자체로 남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긴 애초에 붓다의 가르침도, 깨달음 자체는 고유한 것이라 치더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은 붓다의 깨달음과 동시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위의 지난 수업 요약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교의 성립은 당대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오히려 그 힘을 빌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어느 문화 속에 던져지든, 기존의 것과 혼합되고 변형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전통과 결합하고,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서는 민속 신앙과 결합하여 그 모습을 달리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불교란, 불법에 관한 불교 철학이나,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아닌, 깨달음을 향한 길(가르침)로써의 모습이 참된 것이라고 믿는다. 과거와 현재의 불교의 기복은, 불교 내부에서 유래한 것이라기보다는, 불교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종교적 본성 근저에서 태동하여, 각 민족마다 고유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온 기복신앙들이 그 근본일 것이다. 그리하여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에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나 보살을 신격화 하는 종교로써의 불교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2)윤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을 나는 조금 깊이 접근해보고 싶다. 어느 선까지가 불교철학 강의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인지 잘 짐작할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이번 프로토콜에서의 나의 질문을 이끌어 내기에도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되어 사유의 끈을 조금 끌어보려 한다.

윤회라는 것은 우선 그것이 실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부터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사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인지를 결론내리는 것은, 논리적인 성찰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 왜냐하면 논리는 대상(질료)이 없는 사유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궁금하여 인터넷 등에서 윤회에 관한 것을 찾아본다면,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교철학적 윤회설이 있는가 하면, 기(氣)철학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자연의 물리적인 법칙들에 비유하여 윤회를 납득시키려 한다. 지난 시간 프로토콜에 따르면, 도올은 윤화가 인간 삶의 도덕성을 위한 설정이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기독교적 관점에 의해 여지없이 붕괴되는 윤회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현란한 주장들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깊이가 있어 웬만한 사람들은 소화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게 윤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회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이론이며, 윤회를 체득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여지도 없이, 자신의 기존의 믿음과 재서 그럴듯한 것을 '믿는' 수밖엔 없다.

요컨대 내가 첫째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윤회에 관한 접근법이다. 지난 강의 때, 서구적 인식의 틀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아닌지에 관해 얘기했었다. 인식의 틀을 바꿔보는 것이, 기존의 사상을 구체화시키거나, 수면 위에 띄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불교의 요체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불교라는 문화를 이해하거나, 종교적 코드를 받아들이거나, 불법을 현대적 용어로 재해석하여 불교철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모두 좋은 일들이다. 하지만 비유컨대, 아무리 뗏목의 기능과 역사에 대해 많이 공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을 건너기에는 충분치 않다. 뗏목만큼이나 강을 이해하여야 하며, 강을 이해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렵다. 그 뒤에는 각각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과 뗏목에 관한 순환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쪽 뭍에서 그만 뒹굴고, 뗏목 타고 나가보지 않으면, 저쪽 뭍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윤회에 대한 많은 답들이 있으며, 그걸 모두 허구라고 할 수는 없다. 논리적인 답변은 '완전히 쓸모없는'것이 되기도 힘들다. 예컨대 지난 프로토콜에서 '나'가 없는데 어떻게 현세의 업이 미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답해보고 싶다. 무아론에 의해서도 윤회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무아의 깨달음은 곧 해탈과 직결되는데, 해탈한 자는 그 순간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무아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일종의 인식 형태로써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해탈한 붓다가 무아를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불교적으로 말했

을 때,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이다. 무아는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꿔 말하면,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장 우리 강의실에서 자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답변이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나도 어떻게 현세의 업이 미래로 직결되는지는 하나도 모른다.

결국 윤회는 제 스스로 찾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적 구도의 여정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욕망이라는 것은 억압하거나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산 속에서 마음만 다스리며 수행하는 중들은 몰라도,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불교적 진리가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 내가 아는 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은 절망에서 비롯된다. 삶의 의지마저 깡그리 쓸어버리는 극한의 절망, 그것에 무너져 폐인이 되지 않고, 낭떠러지 끝에서 마지막 손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사람은 집착을 벗어난 평온함의 세계를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나름의 윤회에 대한 생각을 옮겨보고 싶지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으로, 말로 옮길 때마다 뜻이 틀어져 버리는 것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 보았는데, 이것이 소용있는 시도인지는 아직도 의심스럽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소재로 했다. 그것은 인도의 철학자 오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 그것보다 예를 들기에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소년의 인격 형성을 보여주는 앞부분 생략...) 그의 삶이 소년의 모습에서 청년으로 변화해 가는 무렵, 언제 시작 된지도 모르게, 그가 조소와 갈망으로 동시에 대하던 것 - 사랑이 찾아들었다. 그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았고, 친구도 가지고 있었지만, 애정과 욕망과 숙명이 뒤범벅이 된 듯한 것들에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사랑이라 스스로 느낀 것은, 필히 절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구원과 지복(至福)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빛을 느꼈다. 그러나 소년은 인간사의 일에는 너무나 서툴렀다. 현실적 괴리감과, 길을 잃어버린 관계는 두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하였고, 결국 그가 사랑한 이는 떠나 버리고 말았으나, 누가 누구를 버린 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는 사이 이미 소년은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절망감은 지복만큼이나 깊은 것이었다. 그에게는 뜻 모를 절망과, 대상을 알 수 없는 약간의 증오심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삶을 사랑하는 모순으로 결국 세상을 등지지를 못했다. 그런 청년이 택한 길은, 마을 뒤의 큰 산에 산다고 하며, 해탈의 문을 연지 오래라는 선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결심이 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선사의 등을 바라보

며 서 있었다. 청년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분노에 차서, 그러나 대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태도로 자신의 얘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선사는 미동조차 없었다. 돌아갈 곳 따윈 없었던 청년은, 결국 스스로 암자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서 서툴게나마 선정에 드는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발버둥 속에서 천만가지 망상들이 떠돌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체적인 관조를 어렴풋이 터득해 감에 따라, 그가 처한 상황을 조금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갔고, 그에 따라 점차 마음의 그림자가 걷혀 나갔다. 그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평온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가져보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이 해탈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이나 그는 깨어났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미묘한 것을 겪었다. 청년의 마음이 하나 둘씩 속박을 벗어낼 때마다, 그만큼 그의 절망의 무게가 가벼워져 갔다. 그것은 청년의 절망이 진짜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 자신이 절망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의 가장 격심한 고통은, 우습게도 그 자신이 위안거리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에 주목한 이상, 청년은 조금씩 그림자를 안개처럼 뿌옇게 하고, 뿌연 안개는 맑아서 없는 듯하게 변화시켜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노력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같은 길이의 여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나의 화두가, 번뇌가 생겨나면, 그는 그 참모습을 찾아내고, 하나의 답으로 받아들여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그는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기이하게 여긴 청년은 늘 돌아가게 되는 회귀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자리에는 그의 지난 사랑이, 아니 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 그의 사랑이 있었다. 그가 맹목적인 절망과 증오를 걷어냄에 따라, 점차 맑아진 수면이 바닥이 있는 것을 일깨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가는 곳이 매번 다르고,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도 다르지만, 결국 늘 같은 곳에 돌아오는 영원한 회귀 -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와 같은 모습임을 그는 알았다. 그가 만들어낸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의 제 형태들도, 그리고 고요한 선정의 수련조차 모두 그 끝 모를 기룸을 감추거나 갈망하고자 하는 몸짓들에 지나지 않음을 그는 깨달았다. 청년은 윤회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천만가지 망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윤회 또한 천만가지 빛깔로 일렁일 것이라는 것을 뜻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다만 이제야 한 가닥의 윤회를 가다듬어내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마음먹었을 따름이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얽매던 가장 근본적인 집착을 발견했는데, 그는 그것이 오히려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기룸은 기룸일 뿐이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오랫동안 금지하고 억압하여, 오히려 그 기룸의 마음을 변화하지 못하게 막은 셈이었다. 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룸은 어떤 모습으로든 변해 갈 것이고, 청년은 그것을 통해 보다 거대한 윤회 속으로 뛰어들 참이었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서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다시 선사의 등 뒤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간단한 안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는 등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이외의 말은 하고픈 욕구도, 할 필요

성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선사가 잠시 등을 돌려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처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만은 버리지 못하여, 무아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가 속세로 돌아가, 다시금 절대적인 사랑을 이룰지, 그 사랑조차 남김없이 소멸시킬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의 강렬한 집착을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은 이미 전과 같은 혼란에 서서히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미망의 고통은 전보다 더 절실하게 그를 휘감았지만, 전과 달리 그의 정신은 그럴수록 맑아졌다. 만약 그가 사랑을 되살리는 길을 택한다면 결국 그는 영원히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포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청년은 암자 속에서 미묘하지만 진실한 예감에 이끌려 하산을 택했던 것이다. 그 예감이란, 윤회를 초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온전히 윤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직관이었다. 이것은 마음속에 어렴풋한 의심을 남기니 깨달음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예전과 확고히 다른 것은, 어지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삶 속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흐름과 하나 되는 삼매의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의 기룸과, 사랑에 대한 한 줌 의심 없는 믿음에 의해서.

헤르만 헤세를 따라한 듯한 이 짧은 이야기에서, 윤회에 관한 부분들은 물론 내 체득들을 바탕으로 하여 쓰인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저것이 윤회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불교 서적을 참고하여 맞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보다, 어설프더라도 생생한 느낌을 전해 보는 것이 더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시도해본 것이다. 사실상 나의 윤회관은 불교적 무아보다는 헤세로부터 영향 받은 단일의 사상 - 일종의 범아일여에 더 가깝다. 그러니 어쩌면 완전히 헛다리짚은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윤회와 같은 것을 이해하려들 때, 절대적 신을 끌어들여 붕괴시키려 하거나,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예컨대 氣와 같은 것을 끌어들여 설명하려 드는 것은 또 하나의 눈가림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모종의 신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비로움 - 일상의 삶과, 늘 밟고 부딪기는 자연과,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잊게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걸음으로 한발 한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 도그마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불교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질문

⇒뭔가 얘기가 거창해지고 말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병입니다. 예술에 있어서라면 몰라도, 학문이나 수행에 있어 지나친 위대함이나 숭고함은 일종의 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저의 관심은 반쪽짜리입니다. 불교적 진리에는 관심이 많아도, 불법에는 그다지 복종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개론적으로 배운 불교의 교리나 역사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화두와 같은 말들이 저를 불법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훨씬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본도 되어있지 않은 주제에 무리하게 생각들을 이끌어 온 탓인지는 몰라도, 침묵의 언어라는 족쇄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짐입니다. 세심하고 논리적인 철학 사상 체계들에서도 언어의 한계를 곧잘 느끼게 되곤 합니다. 사실 그건 비단 저 혼자 잘난척하는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양적 정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해볼 만한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저는 불교철학을 접할 때마다 상당한 기대감에 차곤 하는데, 그것은 일단 불교의 진리가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보다는, '중생을 이끄는 점'에 있어서는 불교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불교철학이 아무리 철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뗏목 주위에서 얼쩡거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강 건너편에 대한 느낌들이 쌓이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침묵의 언어와 체계적 언어, 여백의 논리와 현상의 논리의 차이점과 맥락을 가장 자주 다루게 되는 사람들이 불교철학자들일 것이란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기대하는 것은, 침묵이나 여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다른 수행이나 구도의 길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철학 자신이 그 방법론을 지키면서도, 언어와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을 법도 하다는 점입니다. 식견이 짧아 아직 그런 것을 찾아낸 적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